전법 일기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인연
인생 방향성 찾게 된 계기

2020년은 더 큰 불교의 세상을 만나게 된 해였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이하 대불련)에 소속되어 있지 않았던 인제대 불교학생회가 대불련에서 활동을 시작했다. 대불련과의 인연은 2022년 대불련 부산지부장 활동으로 이어졌다.

2022년 활동을 시작했을 때, 코로나가 끝나가던 시점이라 여러 어려움에 부딪혔다. 우선 완전히 코로나가 끝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모여지지 않았고 모일 공간조차 명확하게 확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재정적인 어려움도 한몫했다.

감사하게도 화엄승가회에서 내가 지부장으로 활동을 시작하기 전부터 후원을 해주셨지만, 부산시 전체의 학생들을 모으고 행사를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청년 불자 포교를 도모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부처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처럼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의 자비를 만나게 되었다. 그 인연과 자비를 바탕으로 큰 깨달음과 인생의 목표 그리고 방향성을 찾았던 것 같다.

한 예로, 2023년도 1월에 진행했던 '1080배 챌린지'가 있다. 2023년도 새해를 맞아 젊은 불자들이 함께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수행을 해보고자 1080배 챌린지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다양한 도움이 있었다.

부산 북구 진흥사에서는 공간 및 식사를 지원해줬고, 부산교수불자회에서는 참여자에게 문화상품권을 그리고 대불련 부산지부 동문회에서는 간식 제공을 해주시는 등 정말 다양한 분들에게 사랑을 받아 진행한 행사였다. 덕분에 총 24명의 지원자들은 무사히 1080배 챌린지를 마쳤다.

편안한 장소, 그리고 학생이라 흥미를 느낄 문화상품권의 제공으로 시작된 행사 참여였지만, 그 과정에서 인내와 불심을 배운 우리 법우들은 "앞으로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것 같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좋은 인연을 맺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일이다. 이에 관련한 경전 일화를 소개한다. 죽음을 앞둔 장자가 아들에게 "목욕재계를 하고, 동서남북과 위아래 여섯 방향을 향해 예배하라"는 유언을 남겼다. 아들은 유언대로 매일 절을 했는데, 부처님께서 이를 보고 이 같이 말씀하셨다.

"동쪽은 부모, 남쪽은 스승, 서쪽은 아내와 자식, 북쪽은 친구, 위쪽은 사문, 아래쪽은 하인이라고 생각하라. 모든 방위에 절을 하면서 좋은 인간관계의 소중함을 알라."

2024년 현재,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법우들이 원하는 바를 하나씩 차근차근 해내가는 모습을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청년들에게 불교를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고 중요한지 깨달았다. 또한 내 삶의 방향성도 더 많은 사람이 불교를 경험해서 마음속의 촛불을 켜 따뜻함 속에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노력할 것이다. 그 중 하나로 대불련 선배로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을 사랑을 담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열심히 살 것이고 이를 인생의 목표 중 하나로 잡고 있다.



장남주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전 부산지부 회장



공일 스님의 **바이오테크놀로지, 불교로 읽다** ⑦ 아토피 증후군에 대하여

아토피성 질병, 모두 共業의 산물

아토피 환자들의 부모 세대는 근대화의 물결 속에서 주택개량, 토지개간, 혼분식 장려 등으로 삶을 개선하였다. 그 결과 각종 조미료와 방부제, 세탁제, 살충제 등의 화학물질에 과도하게 노출되었다. 부모들은 큰 문제가 없었으나, 태아 수준에서 오염물질에 노출된 개체들은 성장기를 거치며 각종 아토피성 질병으로 고통을 받게 된다.

'아토피(atopy)'라는 용어는 부정의 의미인 'a'와 일정한 영역을 뜻하는 'topos'가 결합돼 'atopy'라는 개념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아토피라는 용어는 특정한 위상 공간(topos) 또는 특정한 범위에 있지 않음을 뜻하게 된다. 이 개념을 의료적 차원으로 적용하여 그 의미를 파악해 보면, 증상은 있으되 그 원인체가 그 장소 내지 공간에 있지 않은 기묘한 질환을 지칭하게 된다. 그러므로 아토피 개념에는 단절과 차단이라는 사회적 단층의 형성이 반영되고 있다.

질병을 유발하는 물질인 '병원체(pathogen)'가 없이도 질병이 발생한다는 개념은 병원성 물질에 대한 부재로서, 질환에 대한 원인물질의 병리적 알리바이에 대한 주장에 다름 아니다. 병원성 물질의 존재는 어떻게 파악될 수 있는가? 현대의학의 개가는 현미경의 발명과 관련이 있다. 이 현미경에 의하여 이전 시대에 알 수 없던 여러 병원균들이 파악된다. 육안으로 보이지 않던 미세한 생명체들이 파악돼 이를 학문화하여 미생물학으로 발달한다. 이후 분자생물학의 발달과 더불어 항원 항체 반응을 거론하는 면역학이 등장한다. 하지만 아토피는 이러한 과학적 성과물들과 무관하게 자리 잡고자 한다.

근대화되며 부모들 삶은 개선돼
과정서 화학물질 과도하게 노출
자녀 피해…사회구조 개선 필요

그림자 없는 나무라든가 메아리 없는 골짜기를 운운하는 것은 연기법에 대한 근본적 부정으로 이어진다. 어찌 뿌리 없는 나무가 자랄 수 있는가? 바람도 없이 파도가 친다는 것은 어불성설 아닌가?

아토피는 질병의 발생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면책사유의 입증과 밀접하다. 아토피가 주장하는 병리학적 알리바이는 체질의 문제로 귀결되곤 한다. 체질을 물려준 부모의 삶을 묻게 되는 것이다.

아토피 질환의 경우, 환자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각종 화학물질을 차단하고 배출하거나 해독하는 것이 급선무로 여겨지고 있다. 환자들은 자신의 삶에 대하여 책임질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아토피적 증후로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러므로 아토피에 내재된 개념은 세대 간의 단절을 암시하며, 세대와 계층 간의 갈등을 반영하는 독특한 사회의 학적 증상으로 자리를 잡는다. 아토피적 증후군은 한마디로 현대사회에 관계의 단절과 공간의 격리를 도입한 것이다.

알레르기가 보편화된 이후, 근래 20년간 새로이 급부상한 아토피의 독특한 병리적 개념이 인식체계에 상식으로 도입되면서 겪어야 하는 것들은 무엇인가? 현장 부재의 면책사유라는 아토피적 증후군은 우리 시대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한 그릇된 대응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 불교가 감당해야 할 시대적 과제들 가운데 하나는 생명현상의 연기적 흐름을 전제로 하는 질병 해석과 대안 제시이다. 무명의 문제는 개인의 수행이기도 하지만 사회구조의 개선과도 긴밀하게 연결되기 때문이다.

〈봉은사 포교국장〉

기자칼럼

미얀마에 희망의 물 '콸콸' 솟길

이 세상 모든 생명은 물을 필요로 한다. 나무도 동물도 사람도. 물이 없다면 살 수 없다. 우리 몸조차 약 70%가 물이 차지하고 있을 정도다. 그만큼 물은 소중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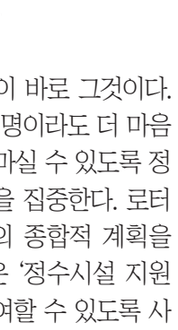
상수도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물을 편히 구할 수 있는 나라와 달리 여전히 저개발국가에서는 오염된 식수로 삶이 위협받고 있다. 해마다 열악한 위생 시설과 더러운 물로 80만 명 이상이 수인성 질병으로 사망한다.

미얀마도 예외는 아니다. 미얀마에서는 생활하수와 산업폐수가 별도의 정화 처리 없이 지표면으로 흘러들어 주민들이 사용하는 지표수와 혼합된다. 그마저도 무더운 날씨로 지하수 생산량이 줄면서 물 부족현상을 겪고 있다. 비가 오는 날이면 빗물을 항아리에 받아 저장한다. 아무런 정수 과정이 없는 탓에 이질·장티푸스 등 수인성 질환에 그대로 노출된다. 그 물이 깨끗하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지만 마시고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런 미얀마 사람들에게 깨끗한 물을 선물하고자 현대불교신문과 로터스월드가 힘을 모은다. '미얀마 정수시설 지원 캠페인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이 바로 그것이다. 양 기관은 미얀마 국민 한 명이라도 더 마음껏 안정하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정수시설 지원 확대에 역량을 집중한다. 로터스월드는 정수시설 건축의 종합적 계획을 관장하고, 현대불교신문은 '정수시설 지원 캠페인'에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 홍보키로 했다. 정수시설은 1기에 600만원의 비용이 들지만, 1000여 명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주기적으로 필터 청소와 교환 등 사후 관리도 이뤄진다.

미얀마에는 집집마다 나그네를 위한 물 항아리를 비치하는 전통이 있다. 목마른 사람에게 식수를 제공하는 자비의 항아리 '예오(Water Pot)'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목마른 이웃과 물을 나누며 부처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는 불심 깊은 미얀마 사람들. 이젠 우리가 그들의 갈증 해소를 위해 나서야 할 때이다.



김내영 편집국 기자

현밀 스님의 **뭉밀이 佛스타툰**



@milmil

일일시호일

급성 난소염으로 날아간
신혼부부의 단 꿈

방글라데시 줌머인 난민 수라보니씨 결혼 · 정착 위해 한국행
결혼 일주일만에 하혈 후 난소절제수술…병원비만 1400만원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070.4707.1080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